염안료 9사, 중국 전시회 집결!

China Interdye 2002 한국관 공동구성 … 중국수출 활로 모색

염료·안료 및 염색 관련기업들이 2002년 5월 15-17일(3일간) 중국 Shanghai에서 개최되는 제2회 「China Interdye 2002」에 대규모 출품을 계획, 중국수출 확대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염·안료 및 조제기업들이 세계 유일의 염색 원부자재 전시회인 「China Interdye 2002」에 출품함으로써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 염료 생산기업들은 유럽제품에 비해 손색없는 품질임을 선전함과 동시에 취약했던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한다면 전시회 출품을 통해 수백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양행, DKC, 오영산업, 삼원산업, 정우화인, 이화산업, 화인케미칼, 태흥산업, 욱성화학 등 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9개 회원사는 한국관을 공동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시회 출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사는 중국 수출 공략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는데 반응성염료, 산성염료, 형광염료를 중심으로 출품할 전망이다.

「China Interdye 2002」 전시회는 2001년 12월13일 WTO에 가입한 중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규모의 행사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타이완, 중국 생산기업들이 800여부스 정도를 출품해 판촉전을 벌일 예정이다. <화학저널 Chemicals 담당 강경화 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02/19>